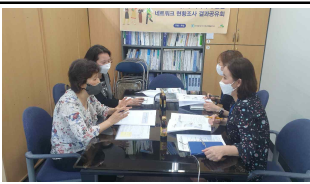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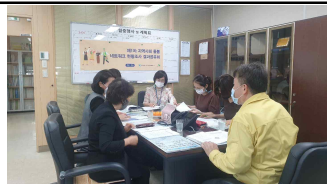
1. 연구소 동정

■ 성동구, 은평구와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현황조사 결과공유회” 개최

우리 연구소는 지난 5월, 은평구청 및 보건소, 성동구청 및 보건소와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현황 조사 결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우리 연구소는 “2020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현황’, ‘협력내용’, ‘통합돌봄에 관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결과공유회에서는 그 결과를 해당 기관들과 공유하고, 이용자 및 실무자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서울 은평구청 결과공유회 (2021.05.13)



서울 은평보건소 결과공유회 (2021.05.15)



서울 성동구청 결과공유회 (2021.05.24)



서울 성동보건소 결과공유회 (2021.05.26)

■ 은평구 소재 “다솜실버데이케어센터”와 MOU 체결

우리 연구소는 지난 6월 18일, 은평구 사회복지기관인 “다솜실버데이케어센터”(센터장 홍형철)와 MOU를 체결하였다. 해당 기관은 고령자 케어서비스뿐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수행 중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MOU로 은평구의 노인복지 실태와 관련 정보를 파악, 현장 기반 정책 마련에 도움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심층면접 조사 완료

우리 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심층면접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조사는 “2020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현황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자로, 총 26개 기관 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은평구 및 성동구 17개 기관 30명, 부산시 북구 및 부산진구 9개 기관 10명이다. 본 조사의 결과는 지난해 진행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현황조사’ 결과와 종합하여 정책자료집 및 정책제안서의 형태로 발행, 4개 지역의 지자체에 전달예정이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온라인 아카이브(Archive) 구축 완료

우리 연구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카이브 구축을 완료하였다. 아카이브에 수집된 자료는 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 자료, ②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③ 법령 및 조례, ④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언론기사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흐름 및 현장에서의 수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소는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다양한 정보, 사진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홈페이지(<http://ccrps.dongguk.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학술 활동

■ KCI 논문 게재

홍송이, 심혜인, 2021, 노인인권익식 척도 타당도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17(1).

이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노인인권실태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인권익식 척도의 타당도를 검사함으로써, 이 척도가 노인복지서비스 내 노인인권익식에 대한 차별적 진단 도구로서 사용가능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주간·야간 재가서비스, 2018년 노인여가복지서비스(노인복지관 및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2019년 방문요양·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 시설장, 시설직원 및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차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개년 동안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학대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총 5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19개 문항을 분석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연구참여자 21,469명을 대상으로 SPSS와 Mplu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모델 적합도 뿐만 아니라 집중타당도 및 분별타당도도 적합한 수준으로 검증되었으며, Amo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권, 사회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권리옹호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총 19개 노인인권척도가 취약한 노인을 포함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 내 종사자들의 인권익식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사정도구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대규모 분석대상을 포괄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타당성이 담보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검증한 것으로,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현상 기제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진단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천희란 외 3인, 2021, 코로나19 유행과 대학생의 디지털 건강리터러시: 정보 탐색과 예방적 건강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4(2).

디지털 미디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디지털 원어민’으로 여겨지는 젊은 대학생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매일 사용하지만, 일부는 건강 정보를 찾고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인터넷 기반 건강 정보 탐색 행동에 주목하여, 다차원적 디지털 건강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고 예방적 건강행동(방역 참여 및 백신 접종 의향)과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국내 거주 18세 이상 전국 대학생 604명을 대상으로 단면연구 설계인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약 2주간으로 국내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있었던 시기이다. 주요 측정도구인 ‘디지털 건강리터러시(DHLI)’는 다섯 개 하위 영역- 즉, 1) 정보검색, 2) 의사 표현, 3) 신뢰성 평가, 4) 적용/이용, 5) 정보 보호-를 포함하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전체 디지털 건강리터러시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서 2.98(±0.4)점으로 높지만, 영역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영역은 47.2%의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디지털 건강리터러시가 높은 군은 예방적 건강행동인 ‘방역 참여’나 ‘백신 접종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이 관련성은 다중 로짓 회귀분석에서도 유의하게 관찰되었다(OR 1.55, 95% CI 1.11-2.17; OR 1.59, 95% CI 1.13-2.25).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디지털 건강리터러시 수준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며, 이 역량이 건강정보 활용이나 예방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정보의 신뢰성 평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디지털 정보의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원으로 디지털 건강리터러시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 SCI 논문 게재

기명 외, 2021, Perceived friend support buffers against symptoms of depression in peer victimized adolescents: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cohort in South Kore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91.

Background: Peer victimiza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for depression, but there is less evidence on how certain factors such as friend support can buffer this associ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friend suppor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victimized and non-victimized adolescent girls and boys from South Korea.

Methods: Participants includes 2258 student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Self-reported perceived friend support, depressive symptoms and peer victimization were measured using validated scales during middle school year 3 (mean age = 15.7 years).

Results: The association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varied by sex (p for sex by peer victimization interaction(0.05). Peer victimization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same year depressive symptoms in girls ($\beta=0.55$) than boys ($\beta=0.24$). After controlling for key confounders, including prior year mental health symptoms, higher levels of friend support were found to attenuate the association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p for friend support by peer victimization interaction <0.05). Peer victimization was associated with more depressive symptoms for adolescents with low and moderate friend support, but not those with high friend support.

Limitations: Peer victimization, depressive symptoms, and friend support, were self-reported and measured the same year.

Conclusions: Friend support protects victimized South Korean adolescents from the negative effect of peer victimization on depressive symptoms, hence contributes to closing the gap in depression between victimized and non-victimized adolescents.

■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참가

우리 연구소는 5월 28일(금) 개최된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거주이동 연구 증거기반> 세션에서 총 4편의 연구결과를 발표, 연구소장인 김정석 교수가 본 세션의 사회를 맡아 주관하였다. 전임연구원인 신유리, 류재윤, 김일호 연구초빙교수는 연구소에서 실시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현황 조사와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결과물들을 종합, 발표하였다. 공동연구원인 문경주 학술연구교수는 도시 중고령층의 주요 이슈로서 귀농귀촌을 조명, 이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실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들은 추후 수정보완을 거쳐, 워킹페이퍼로 발간 후 관련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제3회의 세션2.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거주이동 연구 증거기반>

신유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부산지역의 통합돌봄선도 사업 경험을 중심으로.

김일호·남춘호. 공공과 민간 보건의료기관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탐색적 분석: 서울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류재윤·이재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협력관계 분석: 사회복지기관의 연계협력력을 중심으로

문경주. 도시 중고령층의 사회적 자본과 향후 귀농귀촌 거주이동 요인분석

3. 콜로키움 알림

■ 콜로키움 개최 안내(2021.07~2021.09)

제22차 콜로키움/ 2021.7.16./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 분석 및 향후 연구방향

- 발제자: 김일호, 류재윤,
- 내 용 : ① 최근 지역사회통합돌봄관련 연구 동향 : 학술지 및 정부/지자체 연구기관 발간 보고서를 중심으로
②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연구영역의 확대와 심화 :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지역맞춤형 개발 등
- 추천도서: 4개 지자체(서울 성동구, 은평구/ 부산 북구, 진구)별 결과공유회 및 성과공유회 자료집. 내부자료.
김남훈, 하인혜. (2020).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3차 콜로키움/ 2021.8.20/ 2차년도 연구성과 종합점검 및 3차년도 세부 계획 수립

- 발제자: 김정석, 김일호, 류재윤, 기명
- 내 용 : ① 2차년도 연구평가 및 진행과정 종합점검
②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 3차년도 세부 연구계획 수립
③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대학의 역할 논의
- 추천도서: Eoloise H.P. Killeffer et al, 1990, Successful Models of Community Long 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제24차 콜로키움/ 2021.9.24/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1)

- 발제자: 이태현, 문경주
- 내 용 : ① 네트워크 분석 이론과 응용
② UCINET 활용 방법
- 추천도서: ① JOHN SCOTT,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 a handbook(2/E). SAGE.
② 광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2/E), 도서출판 청람.

■ 지난 콜로키움 주제(2021.03-06)

- 제18차 콜로키움/ 2021.03.19./ 넷마이너를 활용한 Social Network Analysis
- 제19차 콜로키움/ 2021.04.23./ 네트워크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방법
- 제20차 콜로키움/ 2021.05.21./ ERGM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
- 제21차 콜로키움/ 2021.06.25./ 복지서비스의 네트워크 분석 사례

4. 연구소 알림

■ 신유리 연구초빙교수, 2021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제 선정

신유리 연구초빙교수(동국대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 2021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에 선정되었다. 연구과제명은 '장애인 노화경험의 다층적 맥락과 그 의미분석: 뇌성마비장애인의 생활세계 경험을 중심으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뇌성마비장애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직면하는 삶의 경험을 그가 속해 있는 가족과 사회적 맥락에서 탐색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뇌성마비장애인의 노화,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 이재민, 변재희 연구보조원, 경기도 청년 연구 공모사업 선정

이재민, 변재희 연구보조원(동국대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이 경기복지재단에서 실시한 2021년 경기도 청년 연구 공모사업에 신청, "경기도 청년의 건강행위와 불안정성: 성,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지원받게 되었다. 해당 연구는 청년의 입장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건강행위(식이, 수면 등)의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성,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 내 차이를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이지만 서울과 비수도권의 경계라는 경기도의 특수성에 집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보조원들의 일상경험을 토대로 설계되었다고 한다.